

##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청년 여름수련회

말씀과 성령 충만, 간절한 기도 …

‘한국교회의 미래’… 청년 경건훈련의 열기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가 ‘채우시는 하나님’(시 81:10)이라는 주제로 8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열렸다.

수련회 첫째 날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감사 찬양, 청년 전도상 시상식과 조명제 목사의 주제 특강, 성령충만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최근에 있은 청년 전도 대회 결과, 이에찬 형제(당진성전)와 정세진 자매(평택성전) 등 전도대상 15명을 비롯한 108명의 청년들이 당회장 조용목 목사가 수여하는 전도상을 받았다.

조명제 목사는 특강에서 본문 말씀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하여,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삶에 옮겨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입을 넓게 열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입을 넓게 여는 올바른 방법인지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교훈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세상의 온갖 소리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연 입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채워 주십니다. 넘치



도록 채워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입을 넓게 여는 여러분에게 주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청년들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주신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저녁에 열린 성령충만기도회에서 입을 넓게 열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령충만하여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친송했다.

둘째 날에는 새벽기도회에 이어, 은혜와 진리교회 각 성전에서 동시에 드려진 광복절기념 특별성 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키워 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신앙적인 차원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지키고 누리게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 예배와 찬양, 복음 전도



의 세 가지 선택특강을 통해 신령한 지식과 은혜로 무장하고, ‘푸른초장 맑은시내’라는 애와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주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키우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졌다.

셋째 날에는 첫째 날의 ‘주님이 주신 땅으로’와 둘째 날의 ‘주님이 주신 빛으로’에 이어진 ‘주님이 주신 삶으로’라는 순서에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나에게 편지를 써보고 앞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드렸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예배에서 청년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큰은 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 교단 제74차 총회 제3회 임원회

##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 저지·저출산 극복 위해 기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지난 8월 21일(목) 오전 11시 순복음 복된교회(담임 최정식 목사) 회의실에서 제74차 총회 제3회 임원회를 열고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며 주요 안건들을 결의했다.

임원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종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문찬우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총회장 엄하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엄 목사는 롬 13:8~10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허물을 덮고 세우며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며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예배는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문찬우 목사의 회원



점명,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회선언, 종무보고(오세준 목사), 재무보고(최정식 목사), 회계보고(백영자 목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무 오세준 목사는 지난 7월, 평창 대림밸리교회 수양관에서 열린 「2025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가 중고등부·청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충만한 은혜 속에 2박 3일간 성황리에 마쳤음을 보고했다.

안건도의에서는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 주소변경, 교회 전출입, 교역자 전출입, 교회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6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서류 심사,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소집, 세계하나

님의성회 선교위원회 국가 리더회의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해 활발한 선교 협력 방안 모색, 필리핀 태풍 피해 교회 지원 요청 등 다양한 현안도 다루었다.

한편 임원들은 회의 중,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출산 극복과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 저지, 사이비 집단의 미혹 방지와 올바른 신앙 교육 강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과 핵무장 억제, 한미일 협력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합심 기도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미군들의 헌신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문찬우 목사의 회원



## 군선교위원회, 중원부대 방문 위로 격려

“비전과 사명을 품은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8월 22일(금)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훈련 중인 중원부대를 방문하여 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박순용 목사와 정석현 목사는 부대장병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정석현 목사는 수 1:7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하며 “강하고 담대한 장병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으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는 참된 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병들이 군복무 기간을 통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 비전과 사명을 품은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권면했다.

군선교위원회는 장병들에게 빵과 음료를 전달하며 작은 정성을 나누었고, 이를 지원한 경기



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의 협력으로 더욱 풍성한 위로가 되었다. 부대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직접 찾아와 장병들을 위로해 주신 교단과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병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는 9월부터 진행되는 유해 발굴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며, 앞으로 군선교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위문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순용 위원장은 “군 장병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젊은이들”이라며 “짧지만 중요한 군복무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더 큰 비전을 품은 인물로 성장해 가도록 교단과 교회가 늘 기도하며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문에 함께한 목회자들은 장병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군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나라를 지키는 사명과 함께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 장병들을 위해 사랑과 기도의 손길을 더하며, 한국 교회가 군선교에 앞장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 11:25~30)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역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려운 사람은 믿고, 어떠한 사람은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주장과 논리를 박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므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아가 깨어져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마 18:3,4). 예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것과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는 특성을 두고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혼이 나야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성경의 인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암복 나루에서 경험한 사건은 매우 극적입니다. 곤경과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그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눈앞이 킁킁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면 신령한 세계가 눈앞에 열리게 됩니다.(마 11:25,26)

성경을 판단하고 비평하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일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임태되어 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며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이 낮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져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구세주 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며 보해사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져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어린아이같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혜와진리교회)

## 한기총, WEA 이단성 문제 조사키로

'2025 한국교회의 밤' 건은 대표회장에게 위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회는 회원 교단에서 청원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단사이비단체위원회(이하 이대위)에 이첩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한기총은 25일(월) 오전 11시, 제36·4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단성 조사 청원의 건으로 WEA의 이단성에 대해서 회원 교단이 조사를 청원한 건에 대해서 찬성 25명, 반대 5명으로 가결하고 이대위로 이첩했다. S교회 김OO 목사, 고OO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역시 28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하고 이대위로 이첩했다.

2025년도 재정 중간보고의 건으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재정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감사 확인 후 차후 임원회에 감사가 보고하기로 했다.

'2025 한국교회의 밤' 관련 진행의 건은 대표회장에게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안을 위임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지



난 2022년 2차 실행위원회에서 이대위로 재이첩 된 전OO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이대위에서 다시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공동부회장에 이성철 목사를 추가 임명했으며, 회계 박지숙 목사가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여, 교체하기로 하고 추천을 받아 서기원 목사를 회계로 임명하는 것에 찬성 18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결의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부회장 안이영 목사의 사회로, 공동부회장 조윤희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고경한 대표회장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다. 영적 자유를 얻은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에는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진실과 투명과 상식과 공정이다. 대표회장으로서 한기총이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앙과 신학의 인격화와 목회현장화 추진

교회갱신협 7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선출



밝혔다.

교갱협은 1996년 3월 7일 은보 옥한흠 목사의 주도로 한국교회의 내적 성찰과 외적 개혁을 위해 창립된 목회자 협의체다.

'목회자 자신의 간신을 통한 교회의 새

로움'이라는 창립 철학 아래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와 강단 아래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신실한 목회자의 표상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해왔다.

특히 예장 합동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우며, 소속 노회와 총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해왔다.

지난 29년간 교갱협은 교단 내 고고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출회 사람을 실천하며 합동교단의 정체성을 수호해왔다.

올해 제30회 수련회는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시편 85:6)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한기연, 광복 80주년 특별기도회

'참된 해방과 하나님과의 연합'…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 길러야



진행됐다.

고문 조종제 목사는 신 24: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출애굽과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리엘 백성이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하셨다."라고 말했다.

특별강연 시간은 한국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가 '참된 해방과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개혁포럼 대표회장 허식 목사가 '광복절이 가져다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 제4회 웨이크신학포럼 및 성경특강

림택권 목사 '신학과 삶' 조명



행사는 세 명의 발제자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린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일웅 박사(전 종신대학교 총장, 웨이

크신학원 석좌교수)는 목회자이자 신학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김석주 박사(웨이크신학원)는 서북 기독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또한 최경환 박사(웨이크신학원)의 '요한계시록 암기법' 특강이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실제적인 성경 학습 방법론을 제시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일웅 박사는 린 목사를 "한국교회가 넣은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이자 신학교육자"라고 평가하며, 그의 삶을 통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목회자의 본질을 강조했다.

## 사)세복협 '제25회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

오는 9/11~12, 목포주안교회 및 신안비치호텔서 개최



엄기호 목사

모상련 목사

윤보환 감독

이규학 감독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이사장 이규학 감독, 총재 엄기호 목사, 대표회장 김영신 목사)가 오는 9월 11일과 12일 양 일간 전남 목포 주안교회와 신안비치호텔에서 '제25회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목표로 온 몸으로 뛰고 있는 부흥사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영적 재충전을 담당하는 본 부흥성회는 세복협의 최대 행사 중 하나다.

올해 성회 개회예배에선 총재 엄기호 목사(성령사랑교회)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영력향상 세미나에선 모상련 목사(목포주안교회)가 강연에 나선다. 또한 영력향상 부흥회는 상임부총재 윤보환 감독(영광교회)이 인도하고, 결단의 시간에 이규학 감독(이사장, 인천제일교회 원로)이 중심이 된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

이나선다.

사무총장 황연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최대 침체기라 일컫는 올해는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존립을 논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세복협 역시 한국교회 재부흥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갖고 이번 성회를 준비하고 있다. 70~80년대 부흥사들이 중심이 된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

을 오늘날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숙소는 신안비치호텔(2인 1실)에 마련되며, 사전 접수는 1인 5만원이다. 성회에 대한 전반적인 접수 및 행사 문의는 사무총장 황연식 목사(H.P 010-3262-3004)에게 하면 된다.

## '광복 80주년 기념 축복대성회' 성황리 개최

한국기독교영풍회, 세종평화의동산서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기념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김순희 목사)는 지난 8월 14일(목)부터 15일(금) 까지 충남 공주시 우성면 소재 세종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에서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및 광복 80주년 기념 축복대성회'를 은혜 기운에 개최했다.

둘째 날 성권상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받는 복'(시 34:10)

을 주제로,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선포했으며, 셋째 날 오영대 목사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라'(렘 33:3)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과 대학민국, 개인의 역사 모두가 기도의 역사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영적 거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 △끝까지 붙잡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다.

둘째 날 성권상 목사는 '하나님의 이

름으로 말을 전하며, 영적 거부가 강사로 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번 대성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성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김순희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는 구호 아래, 영풍회가 한국 강산에 성령의 역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자고 권면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영풍회는 오는 9월 15일 펠리핀 앙헬레스 복음화대성회를 시작으로, 10월 20~30일 뉴욕 하크네시아교회 복음화대성회(전광선 목사), 11월 중 남경산기도원 성령충만대성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동성애축복식 참여 목회자 '정직 1년' 강력 반발

감리교 동대위, "동성애는 명확한 죄, 파장에 비해 심히 가벼워"

지난해 서울퀴어축제 동성애축복식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감리교 차OO 목사와 김OO 목사가 노회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정직 1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 이하 동대위)가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동대위는 "그들은 이번 판결이 가혹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 행위의 심각성과 공동체에 미친 파장에 비해 경하고 판단한다. 이는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행위"라

며 "동성애는 단지 문화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성경이 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교회에서 신앙과 교리에 걸코 용인될 수 없는 신앙적 본질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판결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된 신앙의 선언이자,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가벼운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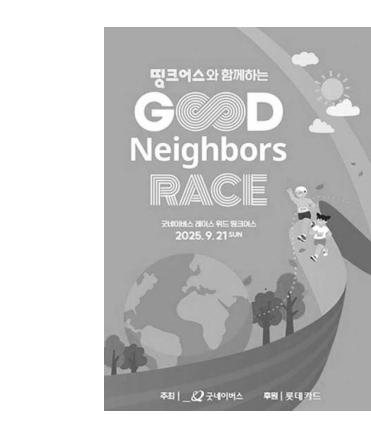
## '굿네이버스 레이스 with 빙크어스' 개최

일상 속 나눔실천 기부러닝대회, 9/21 잠실한강공원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부러닝 대회 '굿네이버스 레이스 with 빙크어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레이스 with 빙크어스'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와 아동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오프라인과 버추얼 레이스를 병행해 약 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비 전액은 몽골숲 조성 사업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는 9월 21일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레이스에는 아동 및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5km 걷기 코스와 10km 러닝 코스가 운영된다.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버추얼 레이스는 '빅워크(Big Walk)'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걷기 또는 달리기를 진행한 후 앱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신청은 4일부터 '굿네이버스 레이스' 캠페인 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참가비는 오프라인 레이스 3만 원, 버추얼 레이스 2만 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마라톤 키트가 제공된다.

롯데카드는 굿네이버스 레이스 메인 후원사로, 참가비 만큼 추가 매칭 기부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한다. 굿네이버스 협력 기업 미스토코리아, LG생활건강, 티젠, 자연드림씨앗재단, 가능바이오 등은 캠페인 참가 물품을 후원하며 캠페인에 힘을 보탠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굿네이버스 레이스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되새기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나눔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기후 난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청귤청으로 피어나는 사랑의 나눔

##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 여선교회가 이웃과 선교지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

여선교회원들은 최근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청귤청 담그기 행사를 열고, 해외 오자 선교지의 어린이들과 제주교도 소내 성경 필사자들을 돋기 위한 나눔의 손길을 모았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5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가며 2.4kg 꿀병 282병의 고전했다.

청귤청을 완성했다.

올해는 감귤나무 해걸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 청귤 확보가 쉽지 않았음에도, 회원들은 귀한 열매를 정성껏 준비했다. 특히 올해 수확한 청귤은 향이 진하고 맛이 뛰어나 특별함을 더했다. 여선교회는 “대량 주문 사전 예약으로 날개 판매는 소량만 가능하지만, 몇 년 전과 동일하게 병당 2만5천 원의 선교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청귤청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선교지 어린이들과 재소자들을 위한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단순히 음료 재료를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통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한마음교회 여선교회의 손길로 빛 어진 사랑의 씨앗이 머나먼 선교지와 제주

교도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열매로 맺히기를 기대한다.

##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

##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운 목사)는 지난 8월 18일(월) 오전 10시 순복음미향교회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정희 목사(순복음미향교회)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와 통성기도로 시작해, 지방회 총무 김희수 목사(이산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 구봉숙 목사(에덴교회)의 기도와 정성열 목사·소정호 사모(신중교회)의 하모니카 찬양 및 다윗의 춤 순서가 있었다.

전임회장 최병진 목사(이산은혜와진리교회)는 시 121:1~8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무더위와 폭염으로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강조했다. 회무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함께 점심을 나누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회장 김상운 목사(이산성광순복음교회)의 인도로 회원 점명, 보고 및 안건 토의가 진행됐다. 회무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함께 점심을 나누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깨어 준비하는 성도, 주의 말씀에 순종’ 강조

##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8월 18일(월) 순복음새생명교회(담임 이광우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총무 이광우 목사의 사회와 찬양 인도로 시작해, 서기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대표기도가 이어졌다. 이어 회계 표현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가 마 24:32~39 말씀을 본문으로 ‘인자가 임하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표 목사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며,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며, 오늘날 성도들 역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을 강조했다. 또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하셨으니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혜로운 종과 같이 충성되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그는 “노아처럼 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자”고 권하며 설교를 맺었다.

설교 후에는 임경영 목사(하늘빛교회),

부회장의 중보기도, 이원정 목사(다메세교회)의 현금기도가 있었고, 회장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무는 회원 점검, 회비 보고, 안건 토의가 진행됐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회원들은 순복음새생명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나누며 교제한 뒤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홈페이지 : [www.ucts.org](http://www.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석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① 만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② 소명의식이 있는 자 ③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쪽 이내)
- ⑥ 반영형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임명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mailto:ucts5181@naver.com)

**7.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인.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1-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mailto: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025학년도

##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li> <li>•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li> <li>•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li> <li>•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li> </ul>

### 2. 전형 방법

- ① 서류 전형 및 면접
- ② 원서 접수 : 수시
- ③ 서류심사 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출신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부해당자)

###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출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하위사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지방회  
AG 정기 월례회

서는 지방회장 김종연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며 지방회 사역의 방향을 공유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선단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함께 나누며 친교와 교제를 더욱 돋구히 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제13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주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모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의 은혜로운 계절을 맞아,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을 제13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올해 대회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사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국교회와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통해 모든 사모님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더욱 굳게 불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님의 평강이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손선희 -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엄하석 목사  
주성교회

고문



최해선 사모  
기흥순복음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손선희 사모  
홍제은혜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모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의 은혜로운 계절을 맞아,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을 제13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올해 대회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사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국교회와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통해 모든 사모님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더욱 굳게 불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님의 평강이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손선희 -

| 일자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2시 ~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 대상 | 교단 산하 전국 교회 목회자 사모

| 후원 및 회비계좌 | 농협 351-1360-4767-73 (김길순, 사모회 재무)

\*각 지방회 및 지방회장 사모님들은 매월 1만원(년 1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주세요~

| 문의 |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 2025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직전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차추연 사모  
안동성곡교회

윤금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감사 이을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 2025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제2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황인경 사모  
주성교회

조은숙 사모  
경찰청교회

김세희 사모  
피산순복음교회

황복란 사모  
사랑의공동체교회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부서기

회계

부회계

재무

이재선 사모  
주는교회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 제13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일정표

	10월 20일(월)	10월 21일(화)	10월 22일(수)
08:00~09:00	대부도 산책 (바다향기수목원)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09:30		찬 양	찬 양
09:30~10:30		폐회예배	폐회예배
10:30~11:00		직전총회장 김영준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정 리
11:00~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2:00~13:00			
13:00~15:00	등록, 방배정		
15:00~15:30	찬 양	찬 양	찬 양
15:30~16:30	개회예배 총회장 엄하석목사 (주성교회)	개회예배 총회장 엄하석목사 (주성교회)	전원성전으로 이동
16:30~17:30	O.T.		
17:3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19:30	찬 양	찬 양	찬 양
19:30~21:10	강 의 안병찬목사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간증과 나눔	간증과 나눔



# 한기총-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협약

## 음악 통한 세계 선교에 함께 동반한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와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대표 김혜영)가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한기총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음악을 통한 세계 선교에 함께 동반하기로 했다.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기총과 함께 세계 5대 빈민마을인 필리핀 바세코에서 클래식 선교 음악회를 진행한 바 있다.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김혜영 대표는 “지난 바세코 음악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 시작과 과정, 그 열매가 하나님과 함께하신 아름다운 꿈이었다”라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한기총에 정말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원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실력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성과 신앙을 두루 갖춘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를 창단했다”라며, “앞으로 한기총과 함께할 사역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선한 일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행치 못할 이유가 없다. 어떤 방해나 반대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하면 한기총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함께할 것이다”라며, “이번에 너무도 선한 일을 함께해주시셔서 감사 드린다.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단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필리핀 바세코 선교에 대한 해답식도 함께 거행됐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필리핀 바세코 문주연 선교사는 “이번 선교팀에게는 사랑이 가득했고, 그 사랑이 열정으로 표출됐다. 선교팀이 다녀간 뒤 우리 성도들이

크게 도전받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며, “우리 바세코를 사랑해주고, 성도들을 존중해주시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정말 귀한 일, 귀한 선교를 우리 한기총과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가 해주셨다”라고 말했다.

한편,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는 클래식을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국내 최고의 연출가 성안인, 연주자, 무용인으로 구성된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는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쳐왔다.

## 세기총-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MOU

### 목회자 은퇴 컨설팅·개인 재정컨설팅 협력 강화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풍수 목사/이하 세기총)와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소장 김남순)가 지난 8월 25일(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세기총 본부 회의실에서 소속 목회자들의 건강한 노후와 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회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가 세기총 소속 목회자와 교회를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담임목회자 은퇴 준비 컨설팅 비용을 50% 할인해 제공하며, 개인 재정 컨설팅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

다. 이러한 혜택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기총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가별·지역별 목회자 은퇴 준비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노력하고,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의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이 진행될 때 소속 목회자들의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소속 목회자들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안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서공회, 르완다에 성경 기증

## 〈킨야르완다어 성경〉 기증 예식 후원에 동참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가 청주종양교회(임학용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92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지난 8월 21일 공회 본부에서 가졌다. 청주중앙교회는 설립 79주년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르완다 성경 보내기 후원에 동참하였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청주중앙교회 임학용 목사는 “성경이 없는 이들, 성경 한 권이라도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성경이 전해져 영혼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친송하는 목소리가 날마다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르완다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다.

르완다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질 때, 공동체에서 나누는 성경 말씀이 빛과 희망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공회 호재민 총무는 “끔찍한 내전을 겪은 르완다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청주중앙교회에서 보내는 성경이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르완다에 성경을 보급하는 청주중앙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나라를 변화를 기대하며 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르완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복잡한 역사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1994년 발생한 종족 간의 갈등인 ‘르완다 대학살’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 전체가 회복을 위해 힘써왔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

또한,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없는 이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일자리 부족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범죄, 중독, 방황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르완다에 전해지는 〈킨야르완다어 성경〉 920부는 역사적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할 것이며, 용서를 통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이 되며, 젊은 세대가 젊어지며, 청주중앙교회에서 보내는 성경이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르완다에 성경을 보급하는 청주중앙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나라를 변화를 기대하며 교회에 감사를



## 샬롬나비 /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관하여

이재명 정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이후 조국과 윤미향으로 약칭)을 포함시켰다. 조국 전 대표는 전체 협기의 33%밖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 출소하였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반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1·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후인 작년 12월 16일 수감됐으나, 8개월도 안 돼 풀려나게 됐다. 국민통합과 내란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권과 가까웠던 윤건영, 최강우, 김은경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도 대거 사면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시절인 2011~2020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는데, 광복 80주년을 앞둔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조국과 윤미향은 사면과 복권이 되고부터 바로 정치적 횡보와 발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새 정부가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살롬나비는 큰 우려를 가지고 이번 광복절 사면이 정치적 협의(報恩) 사면으로 법과 정의에 배치(背馳)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 1.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훼손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훼손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형기를 1/3밖에 채우지 않은 죄수를 특별 사면으로 인권이 훼손되었다.

## 특별사면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 평등을 훼손하였다. 대통령은 민심을 읽어야

조국은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발언을 통하여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더욱 특별히 정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하여 야권과 더불어 좌측에 치우친 정의당 및 일부 시민단체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보은(報恩) 인사로서 정치적 면죄부이다. 특히 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태였으며, 광복절 이라는 민족의 축제에 정치적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 자체를 부정한 결정이었다.

2. 조국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평등을 훼손 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분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치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4. 사면 결정으로 대통령 취임 후 고 공행진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사면 결정을 통해 가지게 될 정치적 타격과 부담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사면 후 여론조사에 의하면 긍정평가 50.9%, 부정평가 45.6%, 10.3% 폭락하였다. 그동안의 고공행진에서 가파르게 내려온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과 감정을 무시하면서 반드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국의 정치적 발언들, 예를 들어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되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 표출은 자신의 부정의 행위와 불공정한 특별 사면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을 단순히 ‘극우’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매도하는 과정적 짓이었다. 이 모든 정치적 책임은 분명 현 정부와 여권에 있으며,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대학입시를 마음대로 주무른 이를 두둔하고,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준 이를 사면 복권 시켜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시키는 이런 정부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특별복권으로 인하여 광복절 사면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훼손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 및 복권을 통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이 훌륭한 제도를 유타고 훼손을 기억해야 한다. 특별 사면은 지금까지 정치적 의도보다는 국민 통합과 상호 관용을 위해 시행되어 왔다. 특별히 광복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회복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사면 및 복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끊어놓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마저 기대하지 못하는 깊은 수렁이 되어버렸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는 앞으로 한여 정치인의 사면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정부는 진보도 혹은 실용도 아닌 무도한 권력 집단에 불과하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행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법재판소가 부당했다고 해임 결정을 하고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다시 특검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 소모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비판적인 해외 동포들, 시민단체와 야권 성향의 국민들을 무조건 ‘극우’라는 딱지를 붙여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 가운데 억지로 시장을 갖추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양지하고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국내외 국민들의 충정처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게 간곡하게 전한다. 법과 원칙이 부정당하는 나라는 결단코 민주주의의 수 없으며, 이는 한심한 독재 국가에 불과하다. 또한,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정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방종한 집단에 불과하다. 아직 그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정부가 벌써, 게다가 민족의 영광인 광복절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훼손한다면, 이는 그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제발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지키고 실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7. 국내 정치의 상황은 국외 외교 문제, 특히 미국과의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동맹의 시험대 첫 허들을 넘겼다. 나라를 위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통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특검 수사에 대해 비난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회담시간도 32분 늦춰지면서 돌발상황 우려가 나왔다. 미국 방문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절과 지식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 28:2) 한국교회는 나라의 죄(사회적 불의와 불공정)를 지적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 격려하여야 한다.

2025년 9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 ACSI 교육기관 10주년 맞아 재인증

### 아신대, 다양한 교육 자격 취득 검증된 기독교교육기관 위상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가 국제적인 기독교 교육기관 인증을 담당하는 ACSI로부터 교육기관 인증을 연장받았다고 학교 측이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아신대는 지난 2014년 국내 대학 최초로 ACSI 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재인증에 성공했다.

학교 측은 “이로써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ACSI는 1978년 설립된 기독교 학교 국제연맹으로,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현재 29개의 지역 사무소를 통해 100여 개국 2만4천여 회원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

아신대는 “이를 통해 약 550만 명의 학생들이 영적·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 교사 및 행정자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 인증,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신대는 “이번 ACSI 재인증을 통해 단순한 교육 품질 검증을 넘어,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선교적 비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ACSI 인증은 선교지에서 대안학교 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으로 활용되며, 졸업생들이 해외 선교 현장에서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신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ACSI 관련 고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확대 예정

### 월드비전-LIG, ‘셀프-헬프(Self-help)’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주)LIG(대표이사 최용준)로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셀프-헬프(Self-help)’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LIG는 총 5천 5백만 원의 후원금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2021년부터 5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LIG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누적 후원금 2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LIG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시작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로, 매년 후원금을 꾸준히 증액해온 결과다. 전달된 기금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가전기구 구입비, 식비 등 실질적인 생계와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상품

권이 포함된 선물키트도 함께 제공된다.

최용준 (주)LIG 대표이사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의 길을 걷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5년간 변함없이 응원해주는 LIG에 감사드리고, 덕분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는 데 큰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다”며,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흘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신록의 시선이 이르는 곳”

동티오는 앞산 지평 눈 열어 시선을 마주하니 푸른 숨결 거친 기상이 미명의 아둠을 걷어낸다. 아천상의 고고함이여 영혼의 고향 울려 퍼지는 실론의 향연인가. 벅찬 감격에 못 이겨 힘차게 노래하는 매미들의 합성이여. 아 힘찬 생명의 재탄생 장엄한 천상의 신비 열줄 비파라.

어둠이여 천상의 찬란한 빛 앞에 굴복하라. 절망의 그림자여 진리 앞에 얼굴을 가리 우리라. 보라 흘러간 세월의 미완일지라도 이제 우리 서로 침묵으로 벗을 삼자. 그리고 후회도 미움도 저 신록의 강가 거룩한 미완의 강물에 흐르게 하자.

그리고 넘쳐흐르는 영혼의 갈증을 주의 말씀으로 목을 죽이자. 생명강이 넘치는 기쁨을 향해 우리 서로 말씀의 노를 저어가자. 진리로 옷 입고 복음의 갑주 삼아 힘차게 전진하자. 아 세월의 신록이여 너의 시선이 이르는 곳을 통하여.

기쁨의 나라, 희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위해 주의 나라와의가 머무는 곳 영원한 예수 생명을 위해. 한 송이 꽃 예수의 향기를 신록에 담아, 한 송이 꽃 예수의 향기를 신록에 담아, 함께 더불어 복음의 축배를 들자. 함께 더불어 복음의 축배를 들자.

세계로 향한 전도사역은 이번에는 남미를 겨냥하고 있다.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아르헨티나·볼리비아·우루과이·파라과이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초청이 들어왔다.

전도대성회가 잡혀있다. 이 큰 땅덩어리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영접기도를 통한 전도사역을 펼치려 한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 여섯 곳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 지난해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일본과 인도를 선교하면서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가족세트전도에서 교회를 3군데 개척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교회 건축하는 선교 현금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번 남미 선교에도 선교비가 많이 지출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넓은 땅에 가족세트전도의 영접기도를 통한 대성회가 펼쳐지길 기도드린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후원 격려를 부탁드린다.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 ‘생명나눔 희망잇는 서울광장’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숭고한 가치 함께 나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는 오는 9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생명나눔 희망잇는 서울광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서울광장은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부스와 문화공연으로 꾸며진다.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의 간증과 의료진, 종교계, 사회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도

이어져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할 예정이다.

특히 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기증자와 수혜자 가족들에게는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뜻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생명나눔 희망잇는 서울광장’ 행사는 전시민에게 열려 있으며, 현장에서 장기기증 서약 참여도 가능하다.

## 독거 어르신 위한 ‘사랑의 장수사진 전달식’

###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통합돌봄사업 전개해 나가

서울 마포구 대흥동종교(교동)협의회(회장 장현일 목사)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전문인 소셜서비스 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 에스더)가 지난 8월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동장 김순영)와 대흥동실버리복지동행단과 협력해, ‘돌봄통합사회를 위한 멋진 인생 사랑의 장수사진 전달식’을 20일 대흥동주민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김현지 복지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달식에서 장현일 회장은 “1인가구가 64%가 되는 대흥동과의 민관협력으로 독거 및 저소득 취약 계층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장수사진 전달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통합돌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영 대흥동장은 “행복동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대흥동교동협의회장현일 목사님과 (사)월드뷰티핸즈 최에스더 교수님을 통해 우리 어르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장수사진으로 담아, 대흥동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동이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석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르신분들께의 가장 멋진 모습을 장수사진으로 담아 영원히 남기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가시기를 바라며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교동협의회 목사님과 뷰티서비스 교수님 및 봉사자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사진촬영은 김광용 사진작가(월드컵올림픽조대작가), 뷰티서비스는 최에스더 교수(신한대)를 비롯한 뷰티분야 교수들이 맡았다. 전달식에는 대흥동교동협의회 회장 장현일 목사(신생명나눔교회), 총무 마지원 목사(새롬교회), 김준희 목사(신촌예배당), 박진용 목사(뉴라이프교회), 장민욱 사무총장(해돋는마을)이 참석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25년도 목사고시 공고

### 2025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1. 서 류 접 수: ① 일시: 2025. 8. 29(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종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종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종회본부에 제출.

\* 종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5. 9. 11(목) 오후 1시 ② 장소: 종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5. 9. 25(월) 오전 10시 ② 장소: 종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5. 8. 29(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 사 고 시 : ① 일시: 2026. 2. 2(월)~3(화) 오전 10시

② 장소: 종회 3층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엄하석      고시위원장 목사 이경진  
총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자유와 질서



자유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는 증거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항상 절제, 그리고 질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절제와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철로를 벗어나서 달리다가 논두렁이나 산길에 나뒹구는 기차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제와 질서라는 두 데일 위를 가고 있는 자유라면 안전한 철로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또한 책임이라는 청구서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요즘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며 또한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알아서 난용한다면 그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을 잃게 될 것이며 다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현실 사회에서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때문

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법을 지킴으로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자유인과 종과의 차이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34).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무질서요 불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의 법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온 다거나 어항을 깨면 그 순간부터 자유는 날아가고 마는 것과 같은 위험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질서가 귀함을 다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설

## 교회가 기도할 때, 민족은 다시 소망을

평화는 어느 일방의 선의로 만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억지력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삼척동

자도 아는 사실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 착하고 신사적인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전쟁의 본질은 승리이며,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전쟁에는 거짓과 솔수,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동원되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살아가는 남과 북이 안

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 군대의 훈련은 기본이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전투력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파(UFFS)’에서 애와 기동훈련

40여 건 중 절반이 넘는 20여 건을 연기한다는 소

식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유는 다름 아닌

‘폭염’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은 날씨를 가려 기다

려주지 않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혹독한 추

위 속에서도 훈련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실제 전장

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이미 한·미 연합훈련은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4년 이상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 ‘카리풀’, ‘독수리’, ‘프리덤가디언’ 등 굽직한 훈련들이

사라졌고, 주한미군 사령관조차 “컴퓨터 시뮬레이

션만으로는 실제 전투에서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할 정도다.

한·미 연합훈련의 무력화는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꿈꿔온 목표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정부

와 정치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훈련을 축소하거

나 연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을 가

볍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정 배경에 친북적

성향을 드러내온 인사들이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 규정하

는데도, 우리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위협’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확성기 철거조차 북한은 ‘잔

꾀요 꼴수리’ 비웃는데,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

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과연 국익을 위

해 필요한 것은 친북·친중 노선인가, 아니면 굳건

한·미 동맹인가? 답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

권 역시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조치였다. 대통령에

게 주어진 사면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사법 질서

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면 명단에는 자녀 입시비리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국민

을 분노케 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정부가 오히려 불의를 뒤

어버린 꼴이다. 사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다시 정

치적 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이러한 결정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의 도덕적 기반마저 흔드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는 여론조사에

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급락했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마저

추락해 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지표가 아니라, 국민이 현

정권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

고 있다는 증거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

가 해야 할 사명은 분명하다. 교회는 이 땅의 파수

꾼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나라가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이때에, 한

국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너진 담을 다시

세워야 한다.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굳건

히 불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끝까지 파수꾼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역시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나리를 불들어 주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일한 태협이 아니라, 거룩한 용기와 깨어 있는

신앙이다. 교회가 기도할 때, 민족은 다시 소망을

얻고, 나라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

이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다.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어느 날의 깨달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신기하게 자꾸만 나의 문제점들을 들춰내신다.

저 사람 변하게 해달라 시작한 기도가 어느 날 보니

날 변화 시켜달라고 기습을 치며 옮겨 있게 만드신다.

우선순위를 절대 벗치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저 사람의 변화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우선인 것을 먼저 알게 하신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청찬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진 사실에 감사만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성령님은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흘로 산다면 깨어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

깨어짐의 과정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단시일에 해결된다면 훈련이란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생각을 조금씩 바꾸시는 훈련이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인간관계 훈련은 평생훈련이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과  
교제한 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  
지난 날 힘든 시간에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을 묵상한다.

## 목 양 신 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 교단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

1)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8월 29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6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총회장 목사 엄하석  
총무 목사 오세준